“입전수수로 새로운 화엄 세상 구현”

<入鄽垂手>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기호 2번 정념 스님

“권한은 교구로, 불교는 국민 곁으로”
“대전환 시대 이끌 새 리더십 필요”
단임제 제도화 · 분권형 종단 우선 추진
참종권 단계적 확대 · 환경 공약도 제시
단일화 여부 “종도 뜻 최대한 모아야”

대담 · 정리=여수령 기자



정념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월정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7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월정사 수선안거 이래 57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과 재단법인 나눔의집 이사, 지구촌공생회 이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2004년 월정사 주지에 취임해 최근 교구장직을 사직했다. 사진=박지운 기자

정념 스님을 만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 배경과 종단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정념 스님은 그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돼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출사표를 던진 정념 스님은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운영, 자연명상마을 옴뷔 개원,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오대산에서 추진해 온 성과를 종단으로 회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마 선언 첫 일성은 ‘단임 선언’이다. 총무원장 연임을 둘러싼 갈등이 종단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총무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협치하는 단임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념 스님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닌 ‘문명의 전환’으로 규정하고, 화엄사상과 연기적 사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단 운영에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로 과감히 위임하고, 총무원은 종단 대표성과 정체성을 구현하며 대정부·대사회·국제적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우 스님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종도들의 컨센서스(합의)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념 스님과의 인터뷰는 8월 11일 서울 조계사 인근 선거운동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Q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종단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중에서 새로운 종책을 실행하고 고민하면서 시대를 통찰해 왔던 제 나름의 관점에서 보면 종단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희망을 갖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마의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Q 종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불교는 전 분야에 걸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가자 급감과 청년 불자의 이탈로 지역 사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중앙집중적 구조와 닫힌 의사결정은 사회적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대전환이라는 문명사적 변화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행으로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재정 투명화와 공정한 인사, 대중공의 회복 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Q 총무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첫째는 청정한 수행력입니다. 수행으로 세운 신뢰가 존경의 바탕이며, 교육·인사·행정의 기준도 학연과 문중이 아닌 수행과 원력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경청과 소통입니다. 총무원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부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공의를 모아내는 자리입니다.

셋째는 회향의 리더십입니다. 권한은 교구와 대중에 내려놓고, 재정은 낱낱이 공개하며, 임기를 연장하지 않는 무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미래를 여는 리더십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새 문명을 열어가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Q ‘단임 선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임제가 갖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단의 큰 위기와 분열은 대부분 권력을 연장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임을 위한 정치가 인사와 재정을 왜곡하고, 그 과정에서 건전한 정치적 합의와 비판 기능은 약화됩니다.

단임은 오직 저 자신의 결단만으로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개혁이기에, 서약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단임제를 통해 종단의 정치 구조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총무원장의 임기를 오로지 종단을 위한 헌신적인 직무의 기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Q 교구자치제의 방향은.

그간 한국불교의 포교와 전법은 단위 사찰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중앙종무기관은 종단을 대표해 대정부·대사회·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총무원 자체가 권력기관화 해 전체를 통제하거나 중앙이 지방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권형 종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인사에서는 말사 주지 임명권을 전면 교구로 이양하겠습니다. 재정에서는 중앙예산의 30%를 교구 핵심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미자립 사찰 지원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교구장협의회의 합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교구별 특성에 맞는 종무·포교·복지 계획 수립권을 보장하겠습니다.

Q 참종권 확대 방안은?

참종권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대중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것은 곧 애종심을 발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거인단 구성의 다양화와 인원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종도들의 뜻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선거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거인단을 장악하는 문화를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선제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부대중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Q 환경 분야 공약을 제시한 이유는.

기후위기는 문명의 위기이자 생명의 위기입니다. 뭇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실천하는 것은 불교의 본분이며, 오대산에서 생태·환경 불사를 실행해 온 경험이 있기에 말이 아니라 검증된 실천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에코 다르마 운동을 전국화하고, 탄소중립 사찰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불교적 사유 속에서 환경과 기후위기, 생태문명에 대한 인식 전환을 불교가 쉼 없이 주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단일화 이유와 가능성은?

단일화는 종단 운영 방식이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는 결국 종도들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종도들의 컨센서스(합의)를 최대한 모을 수 있을 때 결집하는 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쉼 없이 만나고 생각의 차이를 좁혀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더 많이 얻고 선거인단의 지지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후보로 좁혀 가며 단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어떤 총무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종도들이 바라는 여망에 부응하는 원장이 돼야 합니다. 대중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불교가 이 시대의 성찰적 기능과 구세대비 정신을 잘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종단의 제도와 문화, 수행 정신을 통해 불교가 시대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의 초석을 놓고 싶습니다.

4년 동안 모든 것을 완성하기는 힘듭니다. 오늘날 변화는 엄청나게 깊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파고를 잘 넘어서면서 함께 전환해 가야 합니다.

‘기술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교단으로 어떻게 전환해 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풀어내고, 그 전환의 초석을 놓은 총무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Q 종도와 불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번 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를 넘어 종단의 미래를 선택하는 종책 선거가 돼야 합니다. 권한은 교구로, 불교는 국민 곁으로. 그 약속을 단임의 서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산문 밖의 길이 무겁고 멀지라도 사부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수행으로 신뢰를 세우고 대중과 함께 결정하는 종단, 국민 곁에서 희망을 전하는 불교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종도와 불자 여러분의 동행을 간절히 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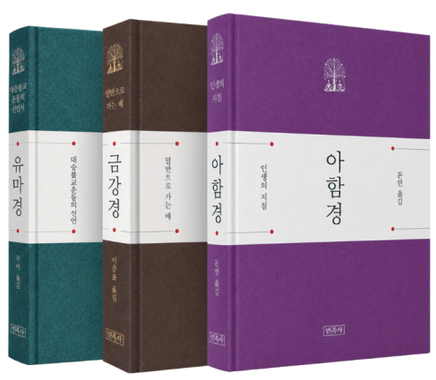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지혜, 오래 간직할 경전

소중한 분과 나에게 경전을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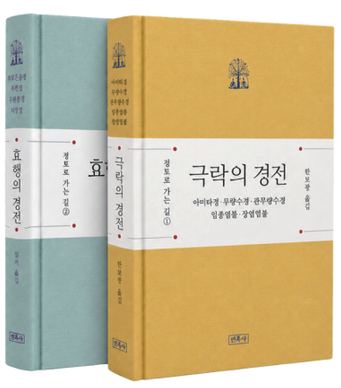
QR코드를 찍고 바로 주문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41,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3,5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3,5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34,000원
- 유마경 무비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스님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25,500원
- 극락의 경전 보광스님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일지스님 옮김 | 12,500원

민족사 대표 경전을 고급 장정 세트로 만나보세요.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